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어판 japan.gnpnews.org
 중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0. 11. 15 ~ 2020. 11. 28 제236호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어느 빈민촌. 제공: WMM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눈에 띄는 진분홍 옷을 입고 새침한 미소를 띤 두 아이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빈민촌에 산다. 아직은 쌀쌀한 아프리카의 6월 어느 날, 이들을 위해 구호팀이 도착했다. 한 끼 식사가 될 빵 한 조각과 스프를 나누어주었다. 이 따뜻한 한 끼로 움츠러드는 아이들의 손과 마음을 잠시나마 녹여줄 수 있기를...

구호팀이 배풀어준 한 번

의 식사는 끝났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식사가 남아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생명의 떡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떡을 먹듯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았다는 사실과, 죄로 인해

죽어야 할 나의 옛 생명이 죽고, 예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새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요한복음 6:51)

[GPNEWS]

“그를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한성연 “신생아를 ‘우리 아이’, 육아를 사회 공동책임 구조로”

최근 정부가 사실상 낙태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한국성결교회연합회(대표회장 한기채 목사, 이하 한성연)가 신생아를 ‘우리 아이’로 여기고 육아를 사회 공동책임 구조로 전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성연은 지난달 말 ‘낙태죄 폐지 법안에 대한 입장’을 통해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는 심각한 우려를 느낀다.”며 낙태 반대의 대안으로 “사회 공동책임 구조로 ‘우리 아이’라는 인식하에 임신부를 보호하고 아이를 잘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지원 체계를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성연은 먼저 “무분별한 낙태로 인해 죽음을 당하는 태아들, 필요한 도움과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혼모들,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성들의 아픔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충분히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 것을 먼저 깊이 회개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며 “출생 후 신생아가 아이가 되고, 청소년과 청장년을 거쳐 노년이라는 것처럼 생명의 모든 과정은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더 중요하거나 가치가 덜하다는 생명의 차별은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낙태의 문제는 곧 생명의 문제다. 생명의 문제는 결코 사회적 경제적 입장에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며 “산모의 자기 결정권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태아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임신한 여성의 인권과 태아의 생명권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성연은 또 “어머니의 자궁은 가장 안전해야 할 생명의 보금자리다. 외부에서 가해지는 폭력적인 힘으

로 자기를 보호할 어떤 힘도 없는 가장 작은 자의 생명을 끌어버리는 것은 안 될 일”이라며 “살릴 의무는 있어도 죽일 권리는 없다. 낙태 합법화는 생명 경시 풍조, 낙태 남용, 아동 유기와 학대, 무분별한 성적 타락 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 최근 법률가들로 구성된 생명존중법조팀은 정부가 발의한 소위 낙태법 개정안인 모자보건법에서 15~24주 낙태를 허용하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해 “태아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는 등의 사회적·경제적 곤궁 등의 사유로 생명권을 박탈함은 기본권 주체의 동등성이 있다더라도 금지되어야 하는 바이며, 태아의 경우 그 동의조차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그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태아의 생명을 맡겨드리며 기도하자. [GPNEWS]



마음의 눈을 밝히사 (20)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짓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가 나쁜 줄도 알고 죄는 지어서는 안 된다고 결심도 하면서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가 좋기 때문입니다. 만약 죄가 징그럽고 너무 끔찍해서 우리 정서에 맞지 않았다면 죄를 짓는 것이 훨씬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종로트해 왔던 우리의 옛 자아는 죄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오히려 율법을 들으면 부담스럽지, 죄에 대해서는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뱀이나 쥐는 징그럽고 더러워서 싫어합니

다. 이와 비할 데 없이 징그럽고 무섭고 끔찍하고 악한 것이 죄인데, 우리의 감정은 죄가 무섭고 더럽고 역겹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으며 느껴지는 짜릿함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우리의 망가진 정서는 마치 이런 상황과 같습니다.

아주 비싸고 느낌 좋은 실크 보자기를 선물 받은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자기가 방금 눈 똥을 그 실크 보자기에 썼습니다. 그리고 흘러나오지 않게 잘 묶고는 가슴에 안았습니다. 너무 따뜻하고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느낌이 좋았습니다. 이런 똥 쓴 보자

기를 느낌이 너무 좋다고 안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똥과 비할 데 없이 모든 더러움과 악독함의 총 본체인 죄를, 단지 느낌이 좋다는 이유로 계속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나쁜 것이고 지으면 안 된다 것을 교리적으로 다 알면서도 버리지 못합니다. 단지 느낌이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단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죄와 사탄을 위해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반드시 죄를 심



일러스트=김경선

판하십니다. 주님은 진노의 그 날을 준비하시고 진노를 쌓아두고 계십니다. 이것이 지금은 회개의 기회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옵니다. 느낌 좋다고 계속 죄에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치유하고 회복하고 위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을 알고 죄의 문제를 반드시 지금 해결

해야 합니다. 그 죄의 심판은 대신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그 분이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치르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새 생명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지금 느낌 좋은 죄의 자리를 떠나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GPNEWS]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김용의.규장.2017)에서 발췌


복음의 소리
316 전화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옛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 허무하신가요?

전화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316 전화는 가까이 있습니다.



장난전화는 삼가주세요

상담전화 ☎ 1670-3160

인도네시아 군부, 성경 번역 목사 고문하고 살해



▲ 인도네시아 군부가 성경을 번역한 예레미야 자남바니 목사를 고문하고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 복음기도신문

인도네시아에서 성경 번역 목사가 군 당국에 의해 고문을 받다가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4일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Komnas HAM)는 지난 9월 19일에 살해된 인도네시아 복음 성막교회 담임인 예레미야 자남바니(67) 목사가 지난 당한 군사 무기에 대한 정보를 빼내려는 군부에 의해 고문을 받았다고 현지 언론을 통해 밝혔다.

과푸아의 '모니(Moni)'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한 것으로 알려진 자남바니 목사는 총상을 입고 왼팔은 거의 잘린 채로 돼지우리에서 발견됐다. 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목사의 시신에는 날카로운 흉기로 인한 상처도 발견됐다.

인도네시아 인권위원회 국장인 모함마드 코이를 아남은 보고서가 "최소 2명의 목격자가 그가 죽기 전 3, 4명의 다른 군인과 함께 현장에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한 것"

이며 "그의 죽음은 사법 관할 외 살인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때 네덜란드의 식민였던 과푸아는 1969년 인도네시아의 통제를 공식화한 '자유선택법'이 통과된 이후, 군부와 과푸아 분리주의자들 사이에 대립이 이어져왔다. 특히 이번 자남바니 목사의 살해는 인도네시아 교회연합회가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게 철저한 조사를 촉구할 정도로 현지 기독교인들의 공분을 샀다.

인권위의 베카 울롱 합사라 위원은 "시민들이 인도네시아군이나 경찰로부터 분리주의 단체에 합류했다는 의심을 받아 희생자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인도네시아 교회 공동체 사무총장인 자클빈 프리트 마누푸티 목사도 인권위가 내린 결론을 지지하며 정부의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지역에서 존경받던 자남바

니 목사가 살해되자 당시 인근의 히타디파 주민 1100명도 숲으로 피신했다.

과푸아 인도주의 팀원인 하리스 아즈하르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토록 존경받는 성직자가 살해되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민들 역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 엠네스티 인도네시아 지부는 군부가 원활한 채광 작업을 위해 주민들이 특정 지역을 의도적으로 떠나도록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도네시아 군부는 지난 10월에도 두 명의 가톨릭 신자들을 분리주의 반군이라고 비난하며 살해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가 전체의 87%를 차지하는 반면, 과푸아는 인구의 80% 이상이 기독교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GPNEWS]

루이지애나, 낙태 권리 불인정 개정안 통과

미국 루이지애나주가 낙태를 산모의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 주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4일 보도했다. 낙태가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라는 개념을 거부하는 루이지애나 수정 헌법 1조는 지난 3일 유권자의 62%에 해당하는 127만 명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 또한 '이 헌법의 어떤 내용도 낙태의 권리를 보장 또는 보호하거나 낙태 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낙태 반대 단체인 '루이지애나 생명권(Right to Life)'은 트위터를 통해 "수정 헌법 1조에 찬성을 투표해 압도적인 생명에 대한 사랑을 보여준 루이지애나에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카트리나 잭슨 주 상원 의원도 3일 트위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이란 메시지를 남기며 투표 결과를 자축했다.

'사랑의 생명 수정 헌법 캠페인'



▲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낙태 반대 운동가들. 출처: proliferouisiana.org 캡처

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낙태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법원이 낙태를 주의 헌법적 권리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또한 "사랑의 생명 수정안은 루이지애나 판사들이 주 헌법에 낙태 또는 낙태에 대한 세금 지원의 권리를 설정할 수 없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이지애나주는 '안전하지 못한 낙태 제한법'을 통해 낙태 시술을

엄격히 제한해 왔으나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여성의 낙태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제한법에 제동을 걸었다.

낙태 반대 단체의 벤자민 클래퍼는 이전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이 주 차원의 생명존중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랑의 생명 수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우리는 모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를 국가 핵심에 둘 수 있다."고 밝혔다. [G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10.26~11.7)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궐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홍대입구역 전광판에 '예수님의 생일 축하' 프로젝트

기독교 소셜미디어 채널 '교회친구다모여'가 지난달 29일 채널을 통해 성탄절을 위한 'HJD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고 31일에 크리스천투데이가 보도했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전광판에 12월 한 달간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일러스트를 게시함으로 비신자에게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이다.

주님, HJD 프로젝트를 통해 이 땅에 젊은 세대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자신의 젊음을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산 제물로 드리는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뉴저지, 21세 이상 성인의 대마초 사용 합법화

미국 뉴저지주가 21세 이상 성인의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 보도했다. 미국 대선과 함께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많은 찬성표가 나왔으며, 뉴저지가 인구 밀집 지역인 뉴욕과 펜실베이니아주 사이에 위치해 있어 대마초 최대 시장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마약의 풍요로 영혼의 빈곤의 위기 앞에서 있는 뉴저지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탄이 삼키려고 두루 찾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히 건져주셔서 악한 길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中, 고등·대학생 건강검진에 우울증 검사 포함 계획

중국에서 정신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당국이 향후 고등학생과 대학생 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 검사를 포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지난달 30일 광저우일보 등이 전했다. 중국청년보가 지난해 7월 웨이보를 통해 대학생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27.6%가 '심각한 우울증'이 있다고 답했다.

인생으로 태어난 의미도 목적도 방향도 알지 못해, 존재적 우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영원한 공간을 완전하게 채우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중국의 다음세대를 일으켜 주십시오.

미국, 동성 결혼식 주례 거부한 웨딩업체 대표... 법원서 '승소'

동성 결혼식 주례를 거부한 미국 오하이오주의 '코버넌트 웨딩즈' 대표가 카운티의 성차별 금지법을 상대로 승소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지난주 발표된 합의문에는 "그들이 성실하게 지킨 종교적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특정 기도, 설교, 서약 또는 기타 글들을 작성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나님, 믿음의 걸음을 걷는 자들이 더욱 담대히 이 길 걷도록, 기쁜 증표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지 않는 결과 앞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남는 것으로 충만한 성도들을 더욱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G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0년 11월 16일 ~ 11월 28일

11월 16일 ~ 11월 21일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11.16(10시)-21(17시) ▶강원 고성 / 동명교회(홍**)010-3191-8622, 11.16~20(14~17시)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11.17,19~21(19~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11.19(0~24시) ▶울산 울주 / 우정교회(박**)010-8308-4628, 11.20(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11.20(20~22시) ▶경북 울릉 / 동산감리교회(조**)010-2639-8795, 11.20~21(05~17시) ▶전북 남원 / 은혜의샘교회(김**)010-3106-3632, 11.20~21(10~22시) ▶전북 전주 / 주소망교회(최**)010-4661-4039, 11.20(13시)-21(13시) ▶제주 조천 / 함덕제일교회(박**)010-5002-2046, 그 외 5교회 진행중.

11월 23일 ~ 11월 28일 ▶경남 통영 / 두미교회(이**)010-4734-8567, 11.23,25-28(10~12시) ▶경남 양산 / 양산교회(전**)010-4501-0059, 11.23~27(14~17시)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11.24(11~16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조**)010-5417-9933, 11.24,26~28(19~22시) ▶전남 신안 / 중부교회(강**)010-5186-0091, 11.27(10~18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11.27(11~24시) ▶경남 김해 / 최**,김** 가정(김**)010-9922-7123, 그 외 3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기획 | 하나님의 섭리와 한국의 근현대 (3)

아르메니아를 보며 까레이스키를 떠올리다

최근 아제르바이잔과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아르메니아란 나라가 있다. 남 캅카스 지역에 위치, 한국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나라다. 하지만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전쟁으로 양국에서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 중 유독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필자의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은 그동안 열방을 위한 기도시간에 보아왔던 이 민족의 지난날 역사적 사건 때문이다. AD 301년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아르메니아는 종교적 이유 때문에 주변 이슬람 국가들에 의해 오랫동안 외침(外侵)을 받아 왔다. 지난 역사에서 최악의 사건은 20세기 초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직후인 1915년부터 1년여 동안 터키 땅에서 150만 명에 이르는 아르메니아인들이 집단 유배와 집단 학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통을 겪으며, 죽임을 당한 일이다. 이와 관련, 터키는 집단 유배가 진행되는 가운데 발생한 불행한 일이라고 일축하면서 학살 사건에 대해서는 함구해 왔다. 이들의 고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 이후 소비에트 사회주의연방(소련)이 이 지역을

다스리던 시절, 그들은 학살사건을 입에 올릴 수도 없었다. 아르메니아 집단 학살 사건을 언급하는 사람은 반 소비에트 민족주의자로 규정돼 시베리아 등으로 유배를 가거나 처형당했다. 참으로 기구한 수난사를 갖고 있는 민족이다.

이들의 이러한 고통이 낫설게 여겨지지 않는 것은 우리 민족 역시 20세기 초 이와 유사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소련 공산화 이후, 연해주 등 러시아의 극동지역에 있던 한인들은 스탈린의 소수민족 분산 배치 정책에 따라 중앙아시아 각지로 강제 이주과정에서 처참하게 죽어갔다. 그들은 지금 중앙아시아 지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지역으로 이주되면서 고려인(까레이스키)이 됐다.

이들 외에도 많은 한인들이 일제 식민지를 거치면서 징용, 이주 등의 이유로 조국을 떠나야 했다. 그 중 만주 일대에서 일제 시대에 조선 독립군의 활동이 극심해지자 일본군은 한인 독립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만큼 만주 지역의 한인들을 공격했다. 그러자 독립군은 동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중국 땅을 떠나, 러시아 영토로 집단 이주했다. 그러나 그들

이 이주한 러시아의 스보보드니(자유시)에서 소련의 배신으로 한인 독립군은 무장해제 당한채 무참하게 학살을 당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제 시대 독립군의 활동은 사실상 중단됐다. 이른바 스보보드니 참변이다. 사건 하나 하나를 되새겨보면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무능한 권력자를 둔 민족의 고통과 나라를 잃은 설움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겪게 된 아픔들이다.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로서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 과연 이런 아픈 역사들을 들추어내며 그 책임을 추궁하고 설혹 가해 당사자로부터 용서를 받아내면 문제가 해결될까? 분명히 왜곡되거나 잘못 정리된 지난날의 역사는 올바른 이해는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 민족 역시 특정 집단에게 가해자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단지 제국주의가 될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조건과 상황만 허락되면 어떤 잔혹한 범죄도 저지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우리나라 노비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다. 한때 전 국민의 40%가 노비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 시대 양반들은 이들 노비와 백정 등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말만 한민족이지 노비와 백정은 자신들을 압제하던 양반들을 한평생 원망하며 살았다.

이토록 철저한 계급사회였던 우리나라에 반차의 구분이 사라지고 사람과 사람이 천부 인권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게된 것은 언제부터



▲ 1909년 무렵, 포사잇 선교사와 동역한 최흥중 목사가 기증한 부지에 세워진 광주 봉선동 시절의 나환자촌. 출처: monthly.chosun.com 캡처

일까? 정확하게 복음의 불모지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난 이후부터다. 20세기 초 3만 명에 이르던 백정과 1만 5000명의 문둥이로 불리던 나환자, 결핵환자. 이들을 누가 돌보고 품어주었을까?

1909년 미국 남장로회 포사잇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나환자에 대한 관심은 윌슨, 쉐핑, 토플, 카딩턴 선교사로 이어지며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렸다. 장로교 총회는 1924년 '문둥병위원회'를 조직, 각 노회별로 헌금을 모아 병원 사업을 시행하고 32년에는 '문둥병 선교주일'을 제정, 전국 교회가 헌금하고 이들을 섬겼다.

20세기 초반 정부가 115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나환자병원을 만들 때, 선교회가 만든 나환자를 위한 병원 시설은 무려 1700명의 환자들을 보살폈다.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한 채 숨어 살아야 했던 이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문둥이도 사람으로 살아갈 희망이 있음을 알려준 유일한 공동체는 이 땅에 십자가 정신으로 들어온 선교사들과 이들

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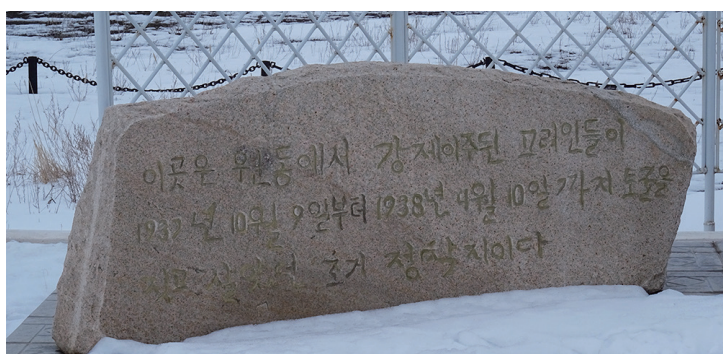
우리 사회의 문제는 적폐로부터 형성된 구조적인 모순의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과 잘못에 대한 개선방안의 도출에서 나오지 않는다. 법과 제도는 또 다른 모순과 허점을 만들어낼 뿐이다. 이 땅의 아픔과 고통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을 위해 이 땅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 사랑의 놀라움과 경이를 로마서 5장 8절에서 보듯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선포하고 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이 땅의 모든 막힌 담을 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외에 어떤 것도 인간의 갈등과 분쟁, 대립을 막아낼 주체는 없다.

[GNNEWS]

김갈렘



▲ 원동에서 우수토베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이 초기 정착지를 알리는 비석. 출처: diverseasia.snu.ac.kr 캡처

월드 뉴스

코로나 사태로 귀국한 선교사 자녀 사각지대 놓여

코로나19로 현지 선교에 제동이 걸리면서 약 9000명의 선교사들이 귀국한 상황에서 선교사 자녀들도 학업을 중단하거나 심지어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경우도 있다고 데일리굿뉴스가 5일 보도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후 30%가 넘는 선교사가 더 이상 현지 사역이 어렵다고 판단해 귀국했다. 이런 가운데 선교사의 자녀, 이른바 MK들도 직장을 잃거나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현지 학교 수업을 한국에서 들어야 하

기 때문에 시차 문제뿐만 아니라 머물 곳이 없어 학업에 집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방글라데시의 박필우 선교사는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안식관이 별로 없어 6개월 동안 7번 이사했다."면서 "자녀가 수업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수업 시간도 시차가 안 맞아서 스트레스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부모와 떨어져 한국에 홀로 들어온 MK들의 경우에는 주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한국에 정착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일부 MK들은 한국인도, 외국인도 아닌 정체



▲ 코로나 사태로 선교사들이 귀국하면서 선교사 자녀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출처: unsplash

성 혼란에서 오는 갈등을 호소하기도 한다.

독일의 고은비 MK는 "해외에서 왔다고 따돌리고, 외국인 차별로

독일에 있을 때도 힘들었는데 막상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서도 외국인"이라며 "내 정체성을 고민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선교 전문가들은 코로나로 인한 갑작스런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MK를 위해 한국교회 청년들이 멘토가 되어주는 것부터 거주공간 제공 등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정용구 KWMA 미러한국선교개발센터장은 "홈스테이로 선교사님 자녀들에게 방을 내주고, 교회 성도들의 기업체에서 MK들을 돕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면서 "청년부에서는 청소년들의 트렌드 같은 것을 얘기해주는 형, 누나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GNNEWS]

기획 | 창조 이야기 (43)

그랜드캐니언은 홍수가 만든 배수로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두 사람이 같은 것을 보면서 반대의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보면 놀랍다. 그랜드캐니언을 볼 때,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콜로라도 강이 수백만 년 동안 해놓은 것을 보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은 “홍수가 30분 만에 해놓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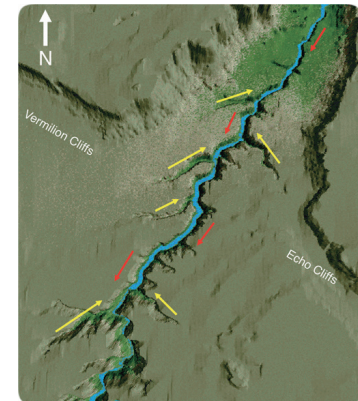
것을 보라.”고 말한다. 그랜드캐니언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 진화론자들은 그것이 약간의 물에 의해 수십억 년의 긴 시간 동안 천천히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창조론자들은 그것이 노아의 홍수처럼 많은 물에 의해 짧은 시간동안 빨리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한다. 진화론자들은 사실과 해석 사이의 간격을 지워버리고 그들의 해석을 사실의 일부인 척 포함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그들의 해석일 뿐이다.

교과서에는 그랜드캐니언을 ‘콜로라도 강이 수백만 년간 바위의 겹겹이 쌓인 층을 깎아냈다. 콜로라도 강이 2000미터의 바위를 깎아 생명의 책의 거대한 페이지와 같은 침전 층을 드러냈다. 계곡의 벽을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훑어 보면 수억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설명하고 있다. 토론 중에 만난 한 무신론자는 내게 “그랜드캐니언을 조각하는데 수백만 년이 걸렸다는 것을 모르나요?”라고 질문했다. 우리의 대화는 이어졌다. “선생님, 그랜드캐니언에 대해 고려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랜드캐니언의 상류쪽이 하류보다 더 높다는 것을 아십니까?” “당연하죠.” “물은 항상 바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그런데요?” “강이 시작되는 곳보다 끝나는 곳이 4000피트(약 121m) 이상 더 높다는 것을 아셨나요?” 그는 혼동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말했다. “테네시에서는 물이 위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나요?” 그랜드캐니언에는 삼각주가 없다. 그렇다면 그랜드캐니언을 쓸어내린 진흙이 어디 있을까? ‘강’이 그랜드캐니언을 만든 게 아니다. 그랜드캐니언은 흘러 내려간 배수로다.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과거에 존재했던 그랜드호수와 호피호수가 차고 넘쳐서 그 계곡으로 급히 흘러왔다. 그 뒤에도 거대한 호수가 있었던 게 분명한데, 텍사스의 엘파소의 뜻이 통행(the pass)인 이유도 그곳이 물의 통로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랜드캐니언의 생김새는 물이 쓸고 내려간 배수로(排水路)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나타낸다. 세계의 모든 강들은 90도 미만의 예각으로 모인다. 강이 모여서 같은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기 위해서다. 그랜드캐니언도 왼쪽 아래의 강이 실제로 예각, 즉 90도 미만으로 모인다. 하지만 북동쪽의 강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지류가 흘러가서 주류를 만난 다음 돌아서 반대



▲ 강의 상류 지역에서 호수의 물이 빠져 형성된 가지 모양의 협곡. 가지협곡(barbed tributaries)이라고 부른다. 출처: grahamhancock.com 캡처

쪽으로 흐른다. 이것을 가지협곡이라고 부른다. 지구에 많이 존재하는 가지협곡은 호수의 물이 빠지는 증거다. 물이 배수로를 통해 댐 밖의 운하로 거꾸로 흘러갈 때, 물이 댐 밖의 낮은 쪽으로 흐르다가 방향을 바꾸어 댐의 틈새로 흘러나오는 현상이다. 이것은 그랜드캐니언이 콜로라도 강에 의해 수백만 년에 걸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직면하게 될 거짓말들 중의 하나다. 진화론자들의 그랜드캐니언에 대한 주장은 지구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계속> [GPNEWS]



▲ 그랜드캐니언. 출처: unspla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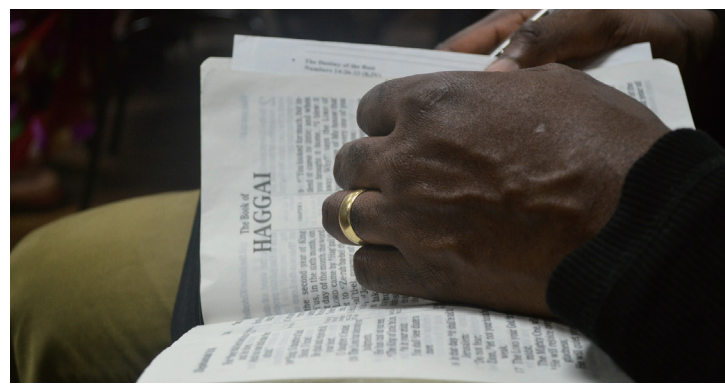
선교 통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이곳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월 중순에 성경연구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 세미나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신약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 지역의 코로나 사태도 심각해지기 시작했고, 마침내 I국 정부에서 록다운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 훈련도 일단 중지하고, 3월 말부터 2달 동안 센터에서 쫓짝 못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기존의 성경 연구는 중단하고, 소그룹 기초 성경공부와 24시간 릴레이 금식기도를 진행했습니다. 지나고 나니 참으로 소중한 추억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긴장되고 숨 막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5월 말에 성경연구학교 훈련을 조심스레 시작했습니다. 조금 염려도 했지만, 기도 중에 계속 훈련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훈련에는 많은 은혜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구약의 마지막 부분인 선지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다시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서리파 자매가 갑



▲ 코로나로 중지되었던 예배와 성경공부 모임이 재개되고 있다. 출처: pixabay

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겨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심장의 가 있는 병원을 찾았지만 병원에서 코로나로 인해 일반 환자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 병원에서 일하는 우리 교회 자매를 통해 간신히 서리파 자매를 입원시킬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돌아가며 서리파 자매를 간호하던 중에 형제 한 명이 약과 주사기를 사러 약국 몇 군데를 다니다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 후 센터에서 한 명 두 명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병원은 독감 약을 지어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모두가 독감약을 먹게 됐고 점점 고통스러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증상이 심각했던 남편이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

과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저와 아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17일간 격리하고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격리 중에도 화상회의 앱으로, 맡겨진 여호수아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강의하고 훈련받으면서 바이러스를 이겨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철저히 출입을 금했고, 물건을 사는 것도 주문과 배달로 받는 등 유난을 떨었는데도 병원에 한 번 다녀온 것으로 모두가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을 보며, 나의 노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엔 너무나 많음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번 주에 에스터 강의를 맡아 진행하면서 역사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세계 1위였던 I국은 사람들은 이제는 어지간하면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고 앓다가 지나갑니다. 현재 거리와 상가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사람들은 마치 코로나바이러스가 없는 듯 마스크도 쓰지 않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무감각해진 상태로 ‘코로나 이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성실하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손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GPNEWS]

I국=장순희 선교사

* 선교지 소식을 제보해 주세요.

긴급한 열방의 상황이나 숨겨져 있는 부흥의 소식을 알려주세요. 독자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5014-0406~8, 010-6326-4641



복음의 능력

십자가에 못 박힌 삶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광야에서까지, 그들의 역사는 기적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아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버리고 타성에 젖은 생활에 만족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런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라고 촉구했다. 오늘날의 교회도 타성에 빠져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길 바라시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처럼 경배의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에 만족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정한 경배를 원하신다. 즉 내적 불과 같은 우리의 영적 본질을 원하신다. 이 불이 꺼지면 예배는 껍데기만 남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더 깊은 삶, 즉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촉구하신다. 이런 삶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볼 수 있는 삶보다 더 깊은 것이다.

[GPNEWS]

십자가에 못 박혀라 (A.W.토저, 2015)에서 발췌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그냥 사는 것이 선교예요”

미국 영혼들을 사랑하는 K·L 선교사(미국)



▲ K·L 선교사(보안지역에서 사역중인 관계로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 복음기도신문

부모님 건강 때문에 잠시 한국에 나오게 됐다는 K 선교사 부부를 만났다. 코로나 사태로 비행기가 뜨지 못하면서 U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한국에서 U국의 성도들과 교체하며 앞으로 진행될 일들을 준비하고 있었다. U국 선교 15년차를 맞는 K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U국에서는 어떤 사역을 하고 계세요?

K: “5명이 한 팀이 되어서 교회 개척과 신학교, 학교 사역 등을 섬기고 있고, 그 외에도 현지인들을 돕는 여러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냥 그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5개 교회가 개척됐고, 신학교도 이동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가 있는 곳은 전기가 3년 전에 들어올 정도로 오지이고 U국에서 가장 가난한 곳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려면 대도시로 나가야 하는데 여건이 안돼요. 그래서 신학교 강사진이 이곳에 와서 신학교가 열려요. 지금은 총 3기가 끝났고 안수 받은 목회자가 7명이 됐어요. 이들이 개척된 5개 교회의 담임을 맡고 있고 아직 신학 과정 중에 있는 목사가 5명 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우물물을 마시지 못하게 했어요

- 코로나 상황은 좀 어떤가요?

L: “U국은 코로나로 3월부터 봉쇄가 되면서 가정들의 생계가 어려워졌어요. 그런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250가정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해주는 분들에게 소식을 알렸는데 재정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와서 1000가정을 도울 수 있었어요. 처음 구제를 시작했을 때 교회를 핍박했던 마을도 찾아갔어요. 그 마을에서 처음 예배드릴 때 마을 회관을 빌려서 드렸는데 마을 사람들이 못하게 했어요. 힌두교 마을에서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면서요. 결국 나무 그늘이나 가정에서 모여 예배를 드렸죠. 지금은 수도시설이 있지만 14년 전에는 공동 우물이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이 먹으면 더러워진다고 못 먹게 했어요. 그래서 1~2km를 걸어서 농업용 우물물을 떠다 먹었어요. 기독교인이 농사짓는 밭을 망가뜨리기도 하

고 기도하면서 얻게 된 교회 건물에 전기를 끌기도 했어요. 그런 곳에 구제활동을 하게 된 것이죠. 4인 가족이 2주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포장해서 4차에 걸쳐 나눠줬어요. 1차 때는 몇 가정만 기독교인이 거기에 뭘 섞었는지 어떻게 아냐면서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어려워지자 2~3차 때는 받고 싶다고 요청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다. 이렇게 어려울 때 돕는 사람이 없는데, 당신들은 우리가 핍박했는데도 도와준다. 살아계신 하나님 맞다.”면서 고백을 했어요. 다른 지역 목사님들 이야기 들으면 예전에는 마을에 가면 ‘왜 왔나?’며 ‘예수 전하러 왔나?’면서 화를 냈는데 지금은 어서 오라고 인사를 한다고 해요. 구제를 통해서 반응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감사해요.”

- 주님이 코로나를 통해 마음의 문을 여셨군요. 그리고 사역의 길이 열렸나요?

K: “그곳에서 처음에는 문맹퇴치학교가 시작됐어요. 그때는 다른 선배 선교사님들이 개척을 하고 나무 밑에서 가르쳤다고 해요. 한 2년 반 이상을 진행하고 나니까 문맹은 퇴치됐어요. 그리고 학교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학교를 지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때 당시 우리 가정은 한국에서 이 마을을 오랫동안 지원하고 돕던 교회에 다니고 있었어요. 당시 아프리카로 떠나려고 준비하던 저희에게 교회가 U국의 이 마을을 섬겨달라고 요청하셨어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교회가 품고 기도하는 나라에 선교사가 함께 마음으로 품고 나갈 것을 말씀해주셨어요. 그렇게 2006년에 처음 U국에 오게 됐고 2년 후 학교 건물을 완성하고 개교를 했어요.”

- 학교 사역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K: “어느 날 7학년 여자아이들이 보이지 않아 물어봤는데, 시집을 갔다는 거예요. 조혼 풍습이었어요. 시골 지역일수록 더 일찍 시집을 보내죠. 이런 상황이 안타까웠어요. 여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거리에 피켓을 들고 나가서 조혼 폐지 운동을 벌였어요. 때마침 U국 정부도 조혼 금지 캠페인을 벌일 때라 마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L: “이 나라는 딸이 결혼할 때 지참금을 많이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딸 낳는 것을 반기지 않아요. 아들은 집안의 재산이라고 생각하지만, 딸은 낙태를 많이 당하죠. 남자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가지만, 여자아이가 아프면 그냥 내버려두고 죽게 놔둬요. 그래서 여아 사망률이 더 높아요. 태어나면 서부터 이런 취급을 받으니까 여자아이들은 공부를 시키지 않아요. 결혼만 시키면 되니까요. 그래서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여자아들도 교육을 시켜야한다고 계몽하고 다녔어요.”

피켓을 들고 조혼 폐지 운동을 벌이기도 했어요

K: “덕분에 학교에 여자아이들의 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기독교를 나온 아이들이 시집도 잘 간다는 소문도 생겨서 우리 학교로 전학을 오는 아이들도 많아졌어요. 좋은 소문이 나서라기보다 학교 자체가 학습의 장으로 쓰일 수 있게 감사해요. 학교에 오면 모든 아이들이 아침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요. 힌두교인이지만 기독교



▲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10그루씩 망고나무를 심고 있다. 제공: K·L 선교사

교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을 알고 오죠. 질 높은 교육 때문에 감수하고 와요. 그 덕분에 학생이 예수를 믿고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L: “우리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면 학생들 가족들도 다 와요. 3000~6000명 정도가 참석하는데, 예배도 드리고 성극도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날은 당장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목회자들이 마을에 방문해서 심방을 하다 보면 학부모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학교가 복음의 귀한 전초 기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 또 어떤 사역들이 있나요?

K: “선교 농장 사역도 하고 있어요. 버려둔 땅이 있어서 30년 임대 계약을 하고 센터를 건축했어요. 그곳을 선교 농장으로 하려고 망고나무도 심고 배추, 무 등 야채를 심었어요. 처음엔 실패했는데, 3년째 성공했죠. 처음에는 야채들을 무료로 필요한 곳에 나눠줬는데 규모가 커지다 보니 지금은 한국 선교사들이나 한국 회사를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이익이 생기면 그만큼 더 많은 현지인들을 고용해서 인력 창출을 해요. 이곳은 시골이어서 도시에 나갈 수 없는 약한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과 함께 일을 해요.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어서 많이 슬퍼하셨어요. 재작년부터는 우리가 한국 야채를 키운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U국 여러 지역에 기차로 배송하는 일도 하게 됐어요. 선교지에서는 한국의 모든 것들이 많이 귀하죠.”

- 여러 방면으로 섬기시고 계시군요? 또 다른 사역도 있나요?

K: “선교 농장과 더불어 지역 개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우물파기도 해 보고, 장학생을 한

뎀 ‘선교사가 뭘 이런 걸 하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회사측에서 사업이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이곳 여자아이들을 지원해 주는 의도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저희 선교 방향은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예요

- 여자아이들을 어떻게 지원해주는 건가요?

L: “우리 주에 있는 한 마을에서는 100년 전부터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망고나무 10그루를 심었대요. 천사 받는 여자아이들을 위한 계몽 운동이었죠. 아이와 함께 망고나무도 자라면서 아이의 교육비용뿐만 아니라 나중에 결혼 비용이 나오는 것이었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회사가 우리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어요. 이 지역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자고 했죠. 망고 씨를 주민들에게 받고 그 수익금으로 그 마을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망고나무 10그루를 심어 주자고 했어요. 그렇게 6년 동안 1만 그루를 심은 것 같네요.”

- 그런 현장을 두고 지금 여기 계시는군요. 앞으로 언제 선교지로 돌아가실 계획이죠?

L: “어떤 분들은 이제 사역지에 돌아가지 않아도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교회도 이제 자립이 되어가니까요. 우리가 꼭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봤어요.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들은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한 선교사님은 선교하던 나라에 내전이 일어났는데 모든 외국인이 철수하는 상황에서 내전의 중심지를 뚫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려고요. 그때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의 형제를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 위험을 뚫고 갔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당장은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믿음의 형제들이 흔들릴 것 같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격려하고 싶어서였어요. 저도 그분들과 같이 살고 싶어요. 이게 선교인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면서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 말이에요.” [GPNEWS]

Y.K.

〈뒷 이야기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gnpnews.org)에서 이어집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1)

구원자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복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막 5:36)

전 방위적으로 수많은 도전과 혼돈이 닥쳤을 때,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 회당장 아이로가 그랬다. 사랑하는 그의 열두살 딸이 죽을병에 걸렸다. 그 아버지의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가 가진 돈과 주변의 어떤 사람도, 회당장이라는 직분도 죽음 앞에 있는 딸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다. 죽음을 맞이한 딸 앞에서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 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한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안고 살아왔다. 하루가 천 년 같은 시간의 무게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순간들로 12년이 채워졌다. 어떤 의사도 고칠 수가 없었고 가

진 모든 재산도 탕진했다. 그녀는 유대 사회에서 그저 부정한 사람일 뿐, 누구와도 만지거나 접촉하지 못했다. 어디에서도 도움의 손길은 찾을 수 없이 스스로 절망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절망은 모든 에너지를 동원하고 모든 기회를 붙잡아 봐도 그 어디에서도 희망을 만날 수 없는 것이다. 완전한 절망. 이때,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된다. 그러나 절망 중이라도 감사하자. 절망의 순간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있다. 이 사실이 큰 격려와 위로가 된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인간으로는 안 되고, 세상으로도 안 되는 그때, 전혀 차원이 다른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구원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복음이다.

회당장 아이로와 혈루증 앓던 여인은 모두 복음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예

수님에게 나아올 수 있었다. 절망이라고 다 같은 절망이 아니다. 출구가 있는 절망은 절망의 차원이 다르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줄 같은 기쁜 소식이다. 소망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존재의 절망 앞에 놓인 인류에게 구원자, 복음을 주시는 구원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정말 복음이다.

캄캄한 밤을 지날 때, 새벽이 온다는 희망만 있어도 견딜만 하다. 스스로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세상 한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이 선포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기가 막힌 인생 밀바닥에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는 누구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절망을 맞이하면서



일러스트=이예원

도 문제는 이 탈출구 없는 세상에서 누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아이로와 혈루증 여인에게 만약 주님이 없었더라면, 위기 순간에 주님이 없었더라면, 찾아갈 주님이 없었더라면, 찾아가 줄 메시지가 없다면 이 얼마나 비극이겠는가.

이 절망의 때에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 바로 예수다. 이 복음이 존재한다는 것만 해도 생명이며 기쁜 소식이다. (2018년 3월) <계속> [G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24-365 기도

2021 긴급기도정보 발간

최신 기도정보 수록

- ◆ 최근 열방에서 일어난 긴급한 기도제목을 담은 2021 긴급기도정보가 새롭게 발간됐습니다!
- ◆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8과 함께 사용하면 됩니다.
- ◆ 가격: 1, 6권은 각 3,000 원
2~5권은 각 5,000 원

구입문의 야긴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복음기도동맹군 은혜 광고*

복음 마스크 출시

고열의 봉제선 없는 3D설계로 세련된 디자인, 빨아쓸 수 있어 경제적이고 환경을 생각하며 피부에 자극이 없는 100% 국내 항균원단과 제조기술은 기본입니다!

*로그변경, 단체구입 문의가능

문의 야긴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 복음과 기도의 삶을 핵심가치로 삼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을 위해 은혜로 게재되는 광고 지면입니다.



쓰디쓴 시간을 겪고 다시 주님 앞에 서다

다음세대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한 후, 다음세대 선교사를 양성하는 헤브론원형학교를 졸업하고 열방으로 단기선교를 떠났다.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나는 가족과 한국을 향한 그리움과 아주 치열하게 싸웠다.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극복해 보려고도 했지만 조금 좋아지는가 싶다가도 다시 어려워지곤 했다. 어쩌면 선교사로서 당연한 일이겠지만 어려서부터 가족과 떨어져 본 적 없던 나에게 모든 것이 벅찼다.

이곳에도 코로나 상황이 심해졌다. 7월 말에 전세가 뜬다고 했다. 우리는 앞으로 장기 선교사로서의 걸음까지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한국으로 가야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했다. 나는 너무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한국으로 가겠다고 했다. 그런데 며칠 후 전세가 취소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2주 동안 내내 울었다. 매일매일 '더 이상 못 버티



일러스트=고은선

겠다.'고 되뇌었다. 그러다 다시 전세기가 뜬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너무 기뻐했다. 그러나 너무 지쳐 있어서 기뻐할 힘조차 없었다. 급하게 짐을 싸고 한국에 도착해 자가 격리를 마치고 가족을 만났다. 10일 동안 가족들과 함께 했던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이후 한국에서 남은 단기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 2주 동안 선교본부가 안내한 곳에서 활동보고와 평가 시

간을 가졌다. 그곳에서 예상치 못했던 행복을 경험했다. 비록 가족과 함께할 수 없었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것 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경험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알게 됐다. 지금까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이 없이 살았는지. 선교지에서 말씀과 기도로써 있지 못해 다른 즐거움들로 나를 채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났다.

'말씀기도 시간이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었구나! 지금부터는 정말 주님을 전부로 사랑하고 싶다. 내게 남은 건 정말 주님 밖에 없다.'

선교지에서 힘든 시간이 없었더라면 이런 절실함은 없었을지 모른다. 그때는 갈급함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지 않고 내 만족을 채워줄 다른 것들에 기웃거리곤 했다. 선교지에서 쓰디쓴 시간을 겪고 난 후 다시 주님 앞에 섰을 때 알게 됐다. 내겐 이 길 밖에는 없구나. 내게 주님 밖에 없구나.

남은 단기선교 훈련기간을 모교에서 섬기게 됐다. 나는 달라진 것이 없다. 연약하고 부족하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나 나의 전부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라는 것만이 중요하다. 지금도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알아갈 것이다. 그렇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 [GPNEWS] 오수아(21)

그림 묵상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소서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겠다고 하며,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며, 교회에 충성 봉사도 한다. 정결한 삶을 드리겠다고 드라마, 쇼핑, 세속적인 모든 것을 끊고 오직 성경말씀만 읽어 보기도 한다. 모든 것을 드렸는데도 주님의 표정이 영석연치 않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를 원한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충격이다. 그제야 내가 바라본 것이 '주님'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나'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전부'가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에게 주님이 '전부'를 보여주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내어준 십자가였다.

우리가 드려야 하는 '전부'는 바로 나 죽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었다. [GPNEWS]

그림 이수진

부흥을 위하여

北 미결수에 대한 수사... 강요나 구타 다반사, 심각한 인권 침해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독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한다. <편집자>

북한의 미결 구금 및 수사 제도가 자의적이고 정당한 절차도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데일리NK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온라인으로 열린 '집승보다 못한 : 북한 미결 구금시설에서의 가혹 행위와 정당한 절차의 위반' 발표회에서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휴먼

라이츠워치(HRW) 아시아 부지부장이 "북한의 사법제도와 현실 사이에서 간극이 있다."면서 "예심절차와 수사 과정에서 불법인 유도신문과 강요, 자백을 받기 위한 구타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종희 전(前) 북한 도 인민위원회 위원도 "북한에서 모든 범법행위는 초기조사(예심)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구타나 욕설 등 수많은 인권 유린이 자행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예심에 가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한다."면서 "북한에서 법은 수

령이나 당의 비위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어 주민들을 보호해주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로버트슨 부지부장은 미결수들이 수감되는 시

설 내 인권 침해 문제도 심각하다면서 "북한 당국은 구금시설에서 수감자들에게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가혹 행위나 고문을 했다. 간수들은 수감자들을 이름이 아닌

숫자로 부르거나 자신과 직접 눈을 마주쳐서는 안 된다는 등 열등한 인간 취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위생용품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

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하며 이 중 일부는 강간을 포함한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를 보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GPNEWS]



▲ 북한에서 미결수에 대해서도 가혹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출처: 유튜브 채널 HRW 캡처

영국, 북한 국제간첩망 암호 체계 모두 해독

영국 첩보기관이 북한의 국제간첩망 암호를 완전히 해독했다고 미래한국이 최근 보도했다. 영국 국방부 사이버 대응팀은 북한 암호 체계를 해독하는 데 6주밖에 걸리지 않았으며 이는 망명한 북한 간첩의 도움 덕분이었다고 영국 데일리 익스프레스가 전했다. 이 북한 간첩은 해외첩보기관 소속으로 민간인으로 위장해 활동하다 홍콩을 통해 망명했다.

서방 첩보기관들은 난수 방송을 기초로 한 북한의 암호 체계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

지만 영국 국방부 사이버 대응팀이 이번에 해독한 내용을 보면 기존의 암호 안에 암호화된 메시지를 숨겨 복수 암호 체계를 사용하고 있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난수 방송과 난수표, 정해진 서적이나 신문 광고와 같은 암호 해독 재료를 통해 전 세계 간첩들에게 지시를 내려왔으나 지난 8월 말 평양이 해외 간첩들에게 보낸 난수 방송에는 '조만간 새로운 암호 체계를 배포할 것'이며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대기하라'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중 암호를 해독한 영국 첩보기관은 최근 북한이 시도했던 3개의 침투·방해 공작을 무력화시켰다. 북한은 프랑스 소재 유럽 항공기업과 호주 군사기지에 침투하려는 음모를 꾸몄다. 또한 호주와 인도네시아 간의 농업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개입하려 했다. 북한은 이를 통해 중국 공산당을 도우려 했다는 것이 영국 첩보기관의 분석이다. 영국은 북한의 암호 체계를 전부 해독해 이 같은 첩보를 파악한 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첩보

기관, 즉 '파이브 아이즈'와 공유했다. 그 결과 북한의 공작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GPNEWS]



▲ 영국의 북한 암호 해독으로 북한의 공작이 실패로 돌아갔다. 출처: unsplash

뷰즈 인 아트
Views in Art

요셉 보이스 <7000그루의 떡갈나무>

진정한 교회의 승리

1982년 제7회 카셀 도큐멘타에 초청된 독일의 미술가 요셉 보이스(Joseph Beuys)는 미술관 앞마당에 7000개의 돌비석을 쌓아 두고, 돌머더의 머리 쪽에는 떡갈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그는 이 '작품'을 <7000그루의 떡갈나무(7000 Oak Trees)>라 이름 붙였지만, 사

실 당시에 떡갈나무는 단 한 그루 뿐이었다. 어렵사리 7000개 비석을 설치한 작가는 이후 시민들에게 도시 곳곳에 떡갈나무 한 그루씩을 심도록 하였고, 심을 때마다 돌머더기에서 비석 하나씩을 가져다 나무 옆에 세우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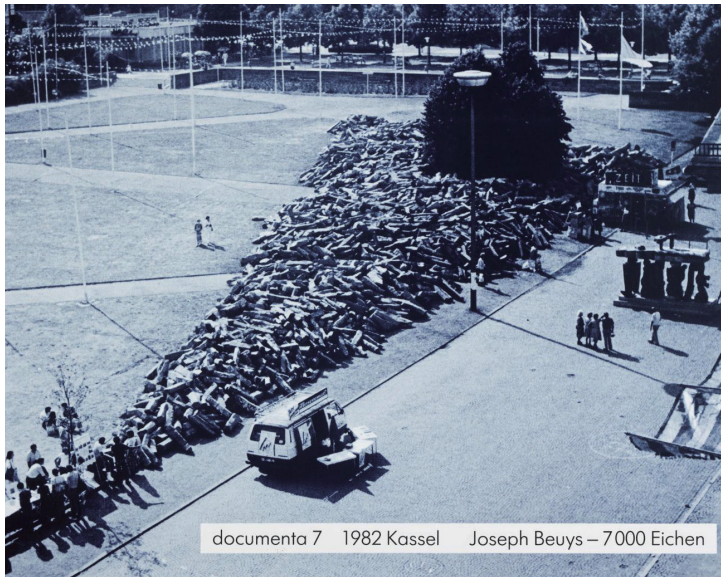
처음 사람들은 미술관의 고풍스

러운 전경을 돌머더기가 다 가린다고 불평했고, 7000그루의 떡갈나무를 과연 다 심을 수 있을지, 저 마지막 돌머더기가 과연 다 없어질 수 있을지 의심하였다. 또는 설령 나무가 다 심긴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랴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차츰 한 명, 한 명 프로

젝트에 자원하기 시작했고, 보이스의 작품은 1987년 제8회 카셀 도큐멘타가 개최될 때 7000번째 나무를 심음으로써 '완성'되었다. 이 5년 동안 사람들은 미술관 뜰에 가득했던 돌비석들이 하나씩 흩어지다 완전히 없어지고, 황폐했던 도시에도 생기가 도는 변화를 보았다.

40여 년이 지난 후, 이제 7000그루의 나무는 무성하게 자라 카셀을 어떤 도시보다 푸르게 만들었다. 안타깝게도 보이스는 작품이 완성되기 1년 전 사망하여 그의 아들이 대신 마지막 나무를 심었지만, 보이스의 소망과 믿음처럼 그의 작품은 결국 완성되었다. 모든 사람이 '예술가'이며, 이들에 의해 공동체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미술'을 강조한 보이스의 주장이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돌머더기에 불과했던 1982년의 사진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성도가 한데 모여 견고한 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뿌리내리고 무성하여져서 생명으로 이 땅을 충만케 하는 것, 교회의 승리가 다른 의미가 아닌 이런 것은 아닐까? [GPNEWS]

이상윤 미술평론가



documenta 7 1982 Kassel Joseph Beuys - 7000 Eichen

▲ 그림 설명: 요셉 보이스, <7000그루의 떡갈나무>, 1982-1987년, 카셀 Fridericianum Museum. 1982년 사진(왼)과 2008년 사진(오른).



☞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태아생명살리기 3년째 국회 앞을 지킨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오전 11~오후 1시 이곳에 가면 매일 "태아를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는 분을 만날 수 있다. 바로 강순원 목사다. 2018년 5월 낙태죄에 대한 뉴스를 보고 가만있을 수가 없었다고 하셨다. 그때부터 3년째 매일 외치고 계신다.

하루는 헌법재판소 앞으로 낙태 반대 현수막을 몸에 앞뒤로 걸치고 나가셨다. 이제 그만해야지 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이름도 모르는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뜻인 거 같아 그만둘 수가 없었다고 하신다. 2019년 4월 11일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을 때도 "우리나라는 망했어." 하시며 많이 우셨다. 판결이 난 뒤로는 국회의사당 앞으로 자리를 옮겨 매일 외치고 계신다. "태아를 살려주세요. 유튜브에 검색해 보세요. 태아들이 살려고 도망치는 것을!"

목사님이 외치시는 자리에 파라솔이 없었는데 어느 날 생겼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같다고 좋아하십니다. 지나가는 국회 직원들도 무심한 거 같지만 피켓 내용도 보고 누가 봐도 본인의 이익은 전혀 없어 보이는 성실함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다. 목사님은 "신호등 기다리느라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어. 내 자리가 중요한 자리야."라고 하신다. 어떤 이들은 "내가 국회에 30년 근무했지만 이 분이(목사님) 최고야."라고 하는가 하면 심하게 화내는 이들도 있었다.



▲ 국회 앞에서 3년째 홀로 태아생명살리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 강순원 목사. 제공: 정영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엔 지하철을 4번 갈아타신다. 비가 오는 날도 비옷을 입고 외치신다. 감기도 안 걸리고 건강하니 빠지고 싶어도 못 빠진다고 하신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날은 그렇게 행복해하실 수가 없다.

나도 낙태죄 기사만 검색해 보다가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피켓을 만들어 나갔다가 우연히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다. 선교! 나는 신앙이 좋아지면 마지막은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로 가서 선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우

금지법과 낙태법이다. 지금 우리 나라는 어느 선교지 못지 않다. 12월 안에 낙태에 대한 법이 만들어진다. 이 시간이 지나면 낙태는 언론에서도 교회에서도 관심 밖으로 밀려날 것 같다. 매일 오전 11~오후 1시 이 시간 국회의사당에 와 보시길. 서있기만 해도 주님의 마음을 부여주신다. 주제는 무겁고 상황은 암담하지만 '내 딸아 정말 잘 왔다.' 하신다. 구름도 하늘도 너무나 아름답다. 구름이 하트로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국회 의사당을 안수해 주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시간 나도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행복하단걸 몸소 느낄 수가 있다. 이 행복을 많은 사람이 누렸으면 좋겠다. [GPNEWS]

정영선 (태아생명살리기 위드유 캠페인 대표)

지금 우리 나라는 어느 선교지 못지 않다

12월 안에 낙태에 대한 법이 만들어진다. 이 시간이 지나면 낙태는 언론에서도 교회에서도 관심 밖으로 밀려날 것 같다. 매일 오전 11~오후 1시 이 시간 국회의사당에 와 보시길. 서있기만 해도 주님의 마음을 부여주신다. 주제는 무겁고 상황은 암담하지만 '내 딸아 정말 잘 왔다.' 하신다. 구름도 하늘도 너무나 아름답다. 구름이 하트로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국회 의사당을 안수해 주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시간 나도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행복하단걸 몸소 느낄 수가 있다. 이 행복을 많은 사람이 누렸으면 좋겠다. [GPNEWS]

정영선 (태아생명살리기 위드유 캠페인 대표)

[인터넷 복음기도신문에서 정영선 칼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0. 10. 14 ~ 11. 5 (가나다 순)
- 개인** 강성민 권순호 김경선 김다경 김명순 김선혜 김선희 김수미 김애심 김일범 김정희 노은옥 문미현 박경희 박상기 박성규 박숙자 박현숙 서지은 안민자 안수경 오세주 우종찬 유국주 윤경석 윤해균 은종숙 이근주 이남준 이승미 이영선 이영옥 이은주 이종훈 이주선 이준진 이진희 장근혜 정금자 정영숙 조명숙 조현광 차상복 차익수 차인순 최임주 최점옥 최정숙 하은숙 무명
-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고현교회 김화제일교회 목자교회 문광교회 반석중앙교회 배방제일교회 산곡교회 복음기도신학연구소 새순교회 샘물교회 선한목자교회 시은좌교회 시흥교회 안양구터기교회 양덕원감리교회 열매교회 오보평강교회 원전축설비 은혜신일교회 정에진영광의빛교회 주나임교회 주만교회 주소망교회 처음사랑교회 하원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을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